

경기순환이론의 연구과제의 방법론

강 기 춘

1. 충격 및 전달과정(impulse and propagation mechanism)

경기순환이 외생적 충격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서 Pigou (1927)는 산업생산의 변동 원인을 충격과정(impulses mechanism)과 충격의 전달과정(propagation mechanism)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경기순환을 연구하는데 계량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던 Frisch (1933)도 외생적 충격의 원인과 충격의 전달과정을 구분하였는데 Frisch의 구조(framework)는 계량적인 경기순환 분석방법의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

2. 충격의 종류 및 수

충격의 종류에는 화폐충격과 실물충격(monetary and real shock) 또는 총체적 충격과 부문충격(aggregate and disaggregate shock) 등이 있다. 화폐충격(또는 명목충격)이란 주어진 충격이 경제내 실질변수(실질총생산, 고용량, 투자 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명목변수(물가, 이자율 등)에만 영향을 주는 충격으로 예상치 못한 통화공급의 증가가 대표적인 화폐충격이다. 실물충격이란 주어진 충격이 경제내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는 충격으로 예상치 못한 기호변화(수요변화), 기술혁신, 원유충격 등이 대표적인 실물충격이다. 한편, 총체적 충격이란 영향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주는 충격을 말하는데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의 변화나 원유충격 같은 것이 대표적인 총체적 충격이다. 부문충격이란 최초에 어느 특정한 산업이나 특정한 지역에만 영향을 주지만 경제의 각 부문들이 서로 생산물을 교역하기 때문에 다른 부문에 영향을 주는 충격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산업에서의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최근의 반도체 경기가 대표적인 부(-)의 부문충격 예가 될 수 있음)나 새로운 기술개발을 들 수 있다.

총체적 충격의 수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총체적 충격이 하나라는 견해와 둘 이상이라는 견해이다. 총체적 충격이 하나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그 충격이 명목충격이라는 견해와 실물충격이라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총체적 충격이 둘 이상이라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충격에는 총수요측 충격과 총공급측 충격이 있으며 총수요측 충격은 주로 GNP의 단기변동을 설명하고 총공급측 충격은 GNP의 장기변동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부문충격은 정의상 그 수가 많다.

3. 전파과정의 종류

전파과정의 종류에는 명목 및 실물 전파과정(monetary and real propagation mechanism)이 있는데 명목 전파과정이란 주어진 외부충격이 경제내 여러 부문으로 전파되어 가나 실질생산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의 전파과정을 말하며 실물 전파과정이란 주어진 외부충격이 경제내 여러 부문으로 전파되어 가면서 생산구조에 영향을 주어 실질생산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경우의 전파과정을 말한다.

4. 선도산업과 후행산업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선도산업(leading industry)과 선도산업에

후행하는 산업(lagging industry)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산업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선·후행산업을 판별하는 방법으로는 계량모형을 이용하지 않고 기술통계량을 계산하여 살펴 볼 수도 있고 거시계량모형에 의해 판별할 수도 있다. 경제에 충격이 주어졌을 때 그 충격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떠한 경로를 거쳐 다른 산업으로 전파되어 가는지를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이용하여 살펴보고 각 충격의 중요도를 예측오차분산분해(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s)를 이용하여 계산해 봄으로써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산업과 후행하는 산업을 밝힐 수 있다.

5. 거시계량모형

경기변동의 원인과 전달과정을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계량모형은 구조모형(structural model)과 시계열모형(time series model)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이 중 시계열모형은 모형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학문 분야에서 연구자들의 연구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계열모형은 일부문모형(one sector model)과 다부문모형(multi-sector model)이 있는데 일부문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은 총체적 충격만을 가지고 국민총생산으로 측정된 총생산변동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경기순환이론에서 볼 때 충격과정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어느 한 부문의 충격이 다른 분야로 전파되어 가는 전파과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모형이다. 반면에 다부문모형은 경제부문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고 총체적 충격 또는 부문충격의 전파과정과 상대적 중요도에 관심을 두는 모형이다. 다부문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기이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는 산업

경기변동이론인데 이는 경제의 각 부문을 산업으로 세분하여 총생산 수준에서의 산업생산수준에서의 경기변동의 원인과 충격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선행 및 후행산업을 밝힌다. 다음으로 지역 및 산업경기변동이론인데 이는 경제의 각 부문을 지역과 산업으로 나누어 지역별-산업별 경기변동의 원인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국가 및 산업경기변동이론인데 이는 세계경제의 각 부문을 국가와 산업으로 나누어 국가별-산업별 경기변동의 원인을 밝힌다.

6. 앞으로의 연구과제

경기변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지역경기종합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는 경기종합지수는 이론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한 통계적 방법에 의해 만들어졌고 또한 경기순환국면에 대한 판정도 상당기간 지나서야 이루어지며 이 지수는 전국의 평균적인 경기상태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지역 경기를 판단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상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경기-압지수-동행지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지수, 경기침체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유용한 연구과제가 된다.